

서울정상회의의 성과 계승·발전을 위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요결과



지난 2.18~19간 프랑스 파리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수 한은총재가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동 회의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G7 재무장관 회의가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체로 확대된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창설된 G20 정상회의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G20 Sherpa 회의와 함께 G20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 정상회의 이후 개최된 최초의 G20 장관급 회의로서 서울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제 통화 제도 개혁, 원자재 가격변동성 등 글로벌 이슈로 확대된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 정책소식 2009년 2월 23일 창간

퍼낸이 이동우 정책기획관

역은이 임재현 정책홍보비서관

대통령실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청와대 정책소식〉은 '친환경 공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비매출**

CONTENTS


04 회의 개요 및 활동 목표

05 주요 회의 결과

09 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1

회의 개요 및 활동 목표



프랑스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습니다.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 18~19일, 프랑스 파리 재무부
 - 2.18일 엘리제궁에서 개최된 Reception에서는 사르코지 佛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각국 장관 및 총재들을 격려했습니다.

○ 세션 및 의제

세션	논의 내용
① 세계경제/Framework	세계경제전망 및 정책공조방안 대외불균형의 예시적 가이드라인
② 국제통화제도 개혁	자본변동성 및 국제유동성 이슈
③ 원자재 가격변동성	가격변동성 평가 및 완화방안
④ 금융규제 개혁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개혁과제 진행 상황 및 향후 이행상황 점검계획
⑤ 기타이슈·코뮤니케	개발·기후변화 자원마련, 코뮤니케 합의

- 의장국인 프랑스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주요 의제 논의방향을 조율했습니다.

2 회의시 아국 활동목표

- 서울 정상회의 이후 첫 재무장관회의인 점을 감안, 서울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모멘텀을 살리는데 주력했습니다.
- 예시적 가이드라인 등 국가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에서 작년의 경험을 살려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

주요 회의 결과

- 의제별 주요내용
- 개별양자 면담(4회)
- 유로피 고위급 금융관련 세미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G20 국가들이 함께
논의했습니다.



1. 의제별 주요내용

1 [세계경제] 경기 회복세가 예상대로 지속되고 있으나 선진국·신흥국 간의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리스크 요인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 선진국은 높은 실업률과 유로지역 국가부도 위험이 상존하고, 신흥국은 자본유입과 인플레이 압력 증가로 경기과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G20차원의 정책공조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재정건전화, 고용회복, 구조개혁 등 정책대응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 [Framework] 서울정상회의시 마련하기로 합의한 대외불균형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선행절차로 평가지표 선정에 성공했습니다.

- ① 대내지표 :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저축률, 민간부채
- ② 대외지표 : 대외불균형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
- ※ 평가지표 선정시 환율·재정·통화 등 제반 정책들을 함께 고려

○ 아국 중재안*에 기초하여 이견이 적은 지표부터 우선 확정하고, 대외지표는 경상수지를 구성요소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환율은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외환보유액은 삭제키로 결정

* 공감대가 형성된 대내지표 4개와 대외지표 중 경상수지는 **표지표**로 우선 확정하고, 논란이 많은 무역수지·환율·외환보유액 등은 **보조지표**로 검토

- 중국은 당초 환율·외환보유액을 삭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음

- 향후 4월에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10월까지 불균형 평가를 수행하여 갠 정상회의시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국제통화제도 개혁] 금융위기 이후 달러중심의 現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개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신흥국들의 증대하는 준비자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유동성으로서의 SDR의 활용성을 제고했습니다.
-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이동에 대한 행동규범을 마련했습니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한 외환보유고 축적유인을 완화했습니다.
 -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 mandate가 부여된 지역협정과 IMF의 협력 확대방안 중점 추진
- 세계경제의 시스템적 안정을 위한 IMF의 거시감독을 강화했습니다.

4 [Commodity] 가격의 급변동성이 세계경제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방안 모색에 합의했습니다.

- 가격 변동성 확대의 원인에 실물적·금융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 실물시장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선 등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자재 생산국-소비국간 대화를 강화
 - 원자재 파생상품 거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개선방안을 마련
- G20에 신설된 Commodity 스터디그룹에게 가격변동성의 근본 원인과 실물·금융 시장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요청했습니다.

5 [금융규제] 서울 합의 과제들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 은행의 자본·유동성 규제(Basel III), 금융기관 보상규제 등 추진방안이 이미 합의된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국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방안을 깎는 정상회의까지 마련하고, 이후 국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논의도 신속히(expeditiously)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거시건전성 규제,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등 서울에서 제시된 신규과제 논의에 착수하고, 세부 추진일정을 마련했습니다.

6 [기타의제] 기후변화 및 개발 관련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UN 기후변화 재원조달 목표('10~'12년간 300억 불, '20년까지 연간 1,000억 불)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공공재원, 민간투자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공공재원 : 탄소배출권 국제경매, 국제금융거래세, 국제운송세
 - 민간투자 : 개도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
- 서울정상회의시 개발이슈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개도국의 능력배양과 자생력 확충에 중점을 둔 것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 인프라 확충,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이 포함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행동계획의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
 - 특히, 인프라 고위급 전문가 패널(HLP: High Level Panel)에게 인프라 투자재원 확충방안을 권고해줄 것을 요청

2. 각국 재무장관과 개별 양자면담

1 [프랑스] 전임 의장국으로서 불균형 평가기준 합의도출 전략 뿐 아니라 회의진행 전반에 대한 세부 절차에 대해 사전에 조언했습니다.

- 당초 佛측은 회의운영에 자신감을 표했으나 신흥국 목소리가 높은 G20의 특성을 인식하고, 前 의장국인 아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 [중국] 향후 G20 체제의 지속발전(sustainability)이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달려있음을 재강조했습니다.

- 경상수지와 관련 강경한 태도로 자국의 입장만을 고수하던 중국에게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토록 권유했습니다.

3 [미국] 프랑스·중국과의 면담결과를 설명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환율·외환보유액 등 논란이 되어온 이슈들에서 지나치게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4 [호주] 서울 정상회의 성공의 조력자이자 든든한 우방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향후 G20 핵심과제에 있어서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3. 유로피(Eufofi) 고위급 금융관련 세미나

폐회사를 통해 향후 금융분야의 과제와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 합의된 금융규제개혁 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함께 그간 소홀했던 신흥국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 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G20의장국 경험을 토대로 간느 정상회의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1 서울 정상회의 이후 개최된 첫 회의에서 아국의 성공적 중재 역할을 통해 논란이 많던 대외불균형 평가지표 선정에 합의했습니다.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르코지 대통령이 리셉션 환영사에서 지난해 한국의 의장국 역할에 대해 경의를 표한 데 대해 모든 국가들이 이에 호응
- 선진국·신흥국 모두의 신뢰와 그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선 것이 주효했습니다.
- 논의 교착시에 회원국 중 유일하게 중립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여 합의의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여타국의 공감을 획득했습니다.

2 금번회의 성과를 토대로 간느 정상회의에서도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가 전승되도록 트로이카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Framework]**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시 원만한 타결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대외불균형의 평가기준 설정이 차질 없이 합의되도록 미국과 중국간 의견 조율에 주력
- **[국제통화제도]** 자본이동(capital flow) 관리방안 마련시 신흥국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안정적인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공급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금융규제·개발이슈]** 금번 회의시 논의된 구체적 이행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의장국·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 **[Commodity]** 원자재 주요 수입국으로서 아국 입장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